

[제 2025-2호]

 한국문화원 Korean Cultural Center Los Angeles	보 도 자 료		<i>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i>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3쪽
배포일시	2025.02.05.	담당부서	영화/문화산업
연락처	323-936-7141(x116) lila@kccla.org	담당자	Seonji Jang

LA한국문화원, “메이드 인 할리우드” 한국드라마 <웨스턴 애비뉴> 특별 상영회 개최

- 광복 80주년 기념해 한인들의 역경과 희망의 이야기 담은 <웨스턴 애비뉴> 상영
- 할리우드에서 제작된 첫번째 K-콘텐츠로 종유석 감독, 김종만 배우 등과의 만남 행사도 열려



- ▶ 행사명 : 광복 80주년 기념 <웨스턴 애비뉴> 특별 상영회
- ▶ 일시 : 2025년 2월 12일(수) 18:30
- ▶ 장소 : LA한국문화원 아리홀 (5505 Wilshire Blvd, LA, CA 90036)
- ▶ 주최/주관 : 주LA한국문화원, 데종필름
- ▶ 행사/취재문의 : 장선지 실무관, 323-936-7141(x116)/lila@kccla.org

주 LA 한국문화원(원장 정상원)은 광복 80 주년을 기념해 2 월 12 일 문화원 아리홀에서 데종필름과 공동으로 할리우드에서 제작된 한국드라마 <웨스턴 애비뉴>의 특별 상영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할리우드 유리 천장을 깨고 성공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한인 영화 제작자들의 좌절과 역경, 꿈과 희망의 스토리를 다룬 5 부작 드라마 <웨스턴 애비뉴>는 한국에서 제작한 한국 콘텐츠가 아니라 해외에서 한인들이 제작한 첫번째 한국 콘텐츠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특히, 지난 해 11 월과 12 월에 각각 아마존 프라임과 온디맨드 코리아에서도 상영중이다.

<웨스턴 애비뉴>는 베니스 단편영화제 신인감독상 등을 수상한 종유석 감독이 연출했으며, 김종만, 이안 오, 테레사 보미 김, 헤이든 원 등 한인 배우들이 대거 출연해, 각자 자신들만의 목소리로 세계적인 영화와 엔터테인먼트의 메카인 할리우드를 배경으로 이민자들의 치열한 삶을 현장을 생생하게 그려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종유석 감독과 김종만 배우가 직접 참석하며, 상영회가 끝난 후 관객들과 제작과정에 얽힌 비하인드 스토리, 작품을 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웨스턴 애비뉴>는 존 김이 대표로 있는 트루어버먼트의 투자로 관객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으며, 투자 조건에 따라 작품 수익은 모두 한인사회에 기부될 예정이다.

종유석 감독은 “한인타운에서 가깝게 보이던 할리우드 사인을 보고 처음으로 할리우드가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고 느꼈다”라며 “주류와 비주류의 경계가 명확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그 경계면을 넘나드는 소수자의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웨스턴 애비뉴>로 제목을 지었으며, 영화제작 현장을 배경으로 한인 이민자들의 다양하고 치열한 삶과 희노애락을 카메라 앵글에 담으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정상원 문화원장은 “광복 80 주년을 맞아 마련된 이번 특별 상영회를 통해 할리우드에서 한인이 제작한 첫번째 한국 드라마를 소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한인

영화 제작자들이 겪는 도전과 열정을 그린 작품으로, 앞으로 한국과 미국, 나아가 전 세계에 한국문화와 이민자들의 삶을 더욱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행사는 문화원 웹사이트(www.kccla.org)를 통해서 사전 예매가 가능하다./끝/

(붙임 1) 드라마 <웨스턴 예비뉴> 상영회 포스터